믿음과 희망주는 고성군의회

2025. 04 17.(목) 10:00
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5분 자유발언

-고성군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제안-

고성군의회
(김석한 의원)

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!
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!
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!
반갑습니다. 김석한 의원입니다.

오늘 저는
‘고성군 한 달 살아보기’ 프로그램
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.

최근 ‘한 달 살기’가
단순한 관광을 넘어
지역 문화를 체험하는
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고성군은 아름다운 자연과
풍부한 역사·문화를 보유한
한 달 살기에
최적화된 지역입니다.

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도
큰 관심을 받으며

모집 2주 만에 마감되는 상황입니다.

이는 고성군에 대한 높은 관심과
잠재적 수요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

따라서,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
고성군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
한 달 살기 프로그램의 확대가
절실히 필요합니다.

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.

첫째, 빈집 활용

고성군에는
오랫동안 비어있는 빈집들이 많습니다.
이러한 빈집들은
지역의 쇠퇴를 상징하는 동시에,
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자원입니다.

이 빈집들을 리모델링하여

한 달 살기 숙소로 활용한다면,
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
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빈집 활용은 고성군의
고유한 정취를 살린 숙소를 제공함으로써
차별화된 한 달 살기 경험을
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전통 가옥을 개조하여 고성군의
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거나,
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
특별한 휴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진행중인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되면
그 내용을 바탕으로
효율적인 빈집 활용 방안을
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둘째, 빈집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 확대
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닌,

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
체류형 관광 숙박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.

요리, 독서, 운동 등
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
공간을 조성하고,
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
한 달 살기 참가자들이
고성군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
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교실,
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 체험 행사,
지역 역사·문화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
참가자들이 고성군의 매력을
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셋째,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

고성군의 매력을 알리고
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

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.

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해
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,
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홍보단을 구성해
고성군의 숨겨진 매력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.

참가자들의 체험기를
공유하는 캠페인 운영 등
마케팅 전략도 강화해야 합니다.

고성군 한 달 살기 확대는
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
지역 경제 활성화, 인구 유입, 문화 발전 등
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.

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
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.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